

해외학술교류활발, 한국치의학의 수출로까지



치과계에서 해외학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70년대만 하더라도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 해외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으나 이제 세계의 학술을 배우고 받아들이기는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 돼버렸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학술대회에서의 외국연자의 강연 또한 일상적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치과계에서 해외학술교류 현황은 어느정도인지 대학과 개원가의 자매결연 현황을 통해 살펴보고 학술교류 및 자매결연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해외학술교류, 국제화의 선봉장으로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메릴랜드 치과대학, 경희치대는 메릴랜드 치과대학의 역사와 시설, 연구 및

학술 교류를 위해 오는 7월 상호간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다.

표1. 전국치과대학교의 자매결연 현황 (2000년 5월)

치과대학	자매결연 대학명	국가명	체결연도
치과대학	펜실바니아대학교 치과대학	미국	92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치과대학	미국	95
	일리노이대학교 치과대학	미국	96
서울치대	동경의과치대학	일본	93
	북경의과대학구강의학원	중국	92
	시드니대학교치과대학	호주	91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	캐나다	98
	오우대학치학부	일본	75
	오사카치과대학	일본	00
	소화대학치학부	일본	00
경희치대	메릴랜드 치과대학	미국	00
	오타고 의치과대학	뉴질랜드	98
	동경치대	일본	77
	구주치대	일본	92
	워싱턴대학교	미국	99
연세치대	펜실바니아대학교	미국	99
	미시건대학교	미국	85
	인디애나대학교	미국	90
	괴팅겐치과대학	독일	96
	도쿠시마대학교치학부	일본	97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미국	97
조선치대	알라바마대학교	미국	98
	오사키대학	일본	89
	도쿠시마대학	일본	95
	동경의과치과대학	일본	95
부산치대	구주대학치학부	일본	84
	Tohoku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일본	91
전남치대	북해도대학치학부	일본	90
	Oregon Health Science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미국	99
	남경대학구강의학대학	중국	99
전북치대	후쿠오카대학교치학부	일본	94
	쓰루마치대	일본	89
	인디애나치대	미국	96
	후쿠오카대학교치학부	일본	94
단국치대	워싱턴치대	미국	90
	마인쯔치대	독일	85

경희치대 뿐만아니라 전국의 치과대학은 세계의 치과대학과의 교류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대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학, 자매결연 통한 해외 학술 교류 활발

치과대학교의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에서 해외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학은 9개 대학으로 나타났다.(표1) 서울치대가 7개, 연세치대가 6개, 경희치대가 5개, 조선치대·전북치대·단국치대가 각각 4개대학, 경북치대가 3개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부산치대·전남치대가 각각 1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미국과의 자매결연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일본,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뉴질랜드, 독일, 호주, 캐나다 등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서울치대는 7개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 다양한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이나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호주, 캐나다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경희치대는 지난 71년부터 오우대학치학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98년에는 오타고의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외에도 오사카치과대학, 소화대학치학부, 메릴랜드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단기교수연구, 공동연구, 대학원생학점교류, 학

부학생교류, 학술세미나, 국제학술대회개최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연세치대는 미국의 4개 치대와 일본의 2개 치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치대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미국의 비스코사, 펜실베이니아 대학, 워싱턴 대학 등을 직접 방문,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조선치대는 3개대학과 치과대학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구강외과학교실과 소아치과학교실이 각각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독일의 괴팅겐 치과대학과 2건의 교수파견, 특히 괴팅겐 대학의 강사진이 1주일간 조선치대에 파견돼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있다. 도쿠시마 대학과는 특례입학 형식의 대학원생을 선발해주고 있어 현재 학생 1명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다.

경북치대는 89년 일본오사카대학, 95년 도쿠시마대학

95년 동경의과치과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교수간 상호방문, 학술교류기념 학술대회 개최 등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학생들간 상호방문을 홈스테이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치대는 84년 일본구주대학치학부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간 15명의 교수가 학술교류차 구주대학치학부를 방문하였고 학생교류는 98년부터 시행돼 25명의 부산치대 학생과 37명의 구주대학치학부 학생이 학업참관을 목적으로 상호방문한 바 있다.

전남치대는 일본 Tohoku대학과 91년에 자매결연을 맺고 치의학교육과 연구분야의 양교간 협력 및 학술교류를 체결했다.

전북치대는 일본의 북해도대학치학부, 미국 Oregon Health Science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중국의 남경대학 구강의학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에이플러스치과병원, 미국치대와 연계한 학술교류 프로그램 개발

“미국 콜롬비아 치과대학에서 보철 수련의 과정을...”

현재 에이플러스치과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술교류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환학생, 교환교수 제도나 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자를 통한 학술교류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에이플러스치과병원은 지난 98년부터 미국의 콜롬비아치과대학과 연계하고 3년코스의 미국의 보철 수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콜롬비아치과대학 보철과에서는 매년 3~4명의 수련의를 선발하게 되는데 그 중의 1명은 한국인이 가능하다. 98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98년, 99년 각각 1명의 한국인이 선발돼 수련과정을 밟고 있으며 올해에도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년동안은 미국의 콜롬비아치과대학에서 수련을 받고 이후 1년동안은 한국의 에이플러스치과병원에서 수련을 받는다. 이를 위해 미국의 콜롬비아치대 관계자가 한국의 병원을 방문해 여러 가지 자격요건 등을 살펴봐왔음은 당연하다.

에이플러스 치과병원 오성욱 원장은 콜롬비아치대를 나온 유학파이다. 오원장이 미국 콜롬비아치대와 연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상

하게 된 계기는 2년이든 3년이든 외국에서 유학한후 개원을 하게 되기까지의 시간을 따져보면 1, 2년이 더 소모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적인 소모를 줄여보자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원장은 또한 이러한 교류로 한국이 세계화에 뛰어들어 한국치의학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보다는 조직을 통한 교류로 공부외로 드는 시간적 비용을 줄이고 미국에서 공부한 후 한국에서 1년동안 공부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치과계 현황 파악이 용이해 개원시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에이플러스치과병원과 콜롬비아치과대학의 교류는 현재 미국보철학회에서도 시범모델로서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에이플러스 치과병원 오성욱 원장은 “일개 병원으로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하므로 하나씩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처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수련의를 통해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더욱 만족스럽고 발전적인 시스템을 이룩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자매결연교의 확대를 통해 좀더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 학생 및 졸업생들의 교류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단국치대는 일본 쓰루미치대, 미국 인디애나치대와 워싱턴치대, 독일 마인쯔치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연변조선족 자치주 구강의학협회 치과외사 1인이 연수한 바 있으며 다가오는 7월에 또다른 한명이 연수계획에 있다. 단국치대는 각 교실별 외국저명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교수들의 외국연수와 외국저명 학술잡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단국치대 및 부속치과병원에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치과외사들에게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도 국제교류 활발

자매결연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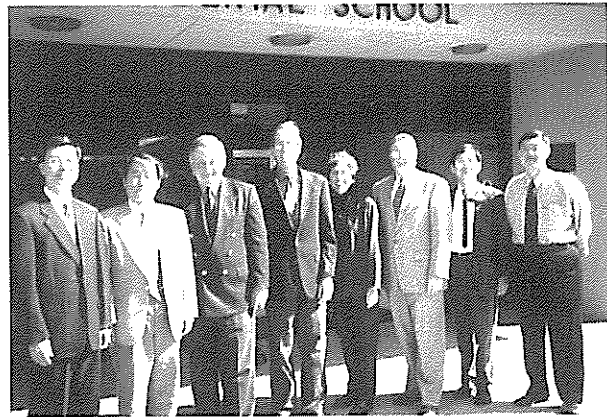
서울지부의 경우에는 지난 68년에 동경도치과외사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술교류를 시작했다.

부산지부에서도 지난 71년 일본의 후쿠오카치과외사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1년에 한번씩 학술교류를 하고 있다. 지난 91년에는 학술교류 20주년을 맞아 양국이 서로 강사진을 파견하고 친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한국에서 60~70여명, 일본에서는 50~60여명 정도가 서로 왕래했으며 한국에서는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일본에서는 친선야구시합을 개최했다.

부산지부는 학술교류 30주년을 맞는 다가오는 2001년에 대대적 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곳과의 학술교류가 60년대부터 행해진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으로 나가기 위한 비자발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의 학술을 접할 기회가 적었다. 이러한 때에 지부차원에서의 학술교류는 외국치의학에 관심있는 회원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치의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차원에서 그리고 학회차원에서 다양한 학술교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의 학습이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진 관계로 지부에서의 학술교류



경희치대는 오는 7월 미국의 매릴랜드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위해 지난 4월 12일 매릴랜드대학교 치대학장과 국제교류담당교수를 만나 자매결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경희대학뿐만 아니라 각 대학간 자매결연을 통한 해외학술교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를 이용해 외국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부에서는 지난 98년 일본의 치바현치과외사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기로 했다. 앞으로 2000년 9월에 서울에서 있을 종합학술대회에서 일본 치바현치과외사회에서 연자로 참석할 계획에 있다.

지부에서의 자매결연시에는 당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학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즉 치과외사회 차원에서의 자매결연에서는 집행부와 친분이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A지부에서는 미국의 LA 치과외사회와 98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나 당시만 교류를 맺다가 유명무실해졌으며 B지부에서는 77년에 일본의 모지치과외사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나 호지부지해졌다.

지부에서의 자매결연시에는 무엇보다도 당시집행부의 친분관계로 의한 자매결연보다는 △관계를 맺을 치과외사회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지속적인 사업연계가 가능한지 △우리쪽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학술교류에 대한 의지가 높은지 △상대편치과외사회의 예산상 지원정도나 치과외사의 위상 등을 살펴 산발적이고 단기적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 비전과 목표 설정, 대등한 교류 이뤄져야

자매결연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은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국제적 시각 확보 및 정보과약 능력이 향상되고 학생들의 해외유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료수집에 도움이 되며 교수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연구에 있어 시스템이나 행정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기술 입수가 용이하다.

자매결연의 긍정적인 측면 활용, 실질적 교류 되도록

자매결연은 교육과정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새로운 제도를 습득하며 연구분야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졸업생의 폭넓은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의 하나다.

부정적인 측면은 상호호혜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류일 경우에는 재정적인 투자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희치대는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대를 물색하던 중 미국의 매릴랜드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다가오는 7월에 협정조인식 및 학술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경희치대교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는 신제원 교수는 △매릴랜드치과대학이 160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최초의 치과대학이라는 것 그리고 △경희치대가 제2치대관을 짓는데 앞서 최신의 시설설비를 갖추기 위한 모델이 될 만하다고 판단, 매릴랜드치대와 시설설비까지 co-work해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제원 교수는 “앞으로의 경쟁은 소프트웨어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실이 몇 개인지, 크고 넓은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좌우됩니다”라고 말했다.

치대에서 공동연구의 경향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간의 공동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경희치대 신제원교수는 “외국에서는 대학에서의 연구는 곧 돈의 창출로 이어집니다. 또한 연구비의 단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중심이 아니라 교수 중심으로 기존의 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며 공동연구를 통한 학술

의 발전을 강조했다.

한국치의학의 해외수출

치의학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열등한 경우 국내에서 배워가는 학생 또는 교수도 있다. 곧 이는 치의학의 해외수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세치대에서는 몽골치과 의사와 중국연변조선족이 수련을 받은 바 있으며 단국치대에서도 연변의 조선족이 연수를 받은 예가 있는 등 치과의료계도 세계화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자매결연을 통해 상대편을 실질적 모델로 삼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경희치대의 경우 지난 75년 오우대학치학부와 결연을 맺었다. 오우대학의 경우에는 설립에서부터 경희치대와 관계를 맺고 경희치대를 모델로 삼은 케이스다.

자매결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가 돼야 한다. 이리기 위해서는 체결하고자 하는 대학만큼의 동등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힘은 학술적인 능력이라든지 시설적인 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만의 특색있는 테크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 쪽만 잘해서는 결코 자매결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속에서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된다. 넷째로는 국제교류를 위한 조직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 국제교류위원회 등의 국제교류를 위한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도 있다. 자매결연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만 조직과 조직이 대등한 입장에서 결탁을 하면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되고 학생이나 교수도 교류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

이제는 한국의 A대학과 B대학의 경쟁이 아닌, 세계의 대학과의 싸움에 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무엇을 벤치마킹할 것인가

이러한 자매결연을 통한 학술교류 및 친선교류가 내실화를 잃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해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 치과대학의 최첨단 임상전단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해외치대의 선진화된 모습이 국내 치과대학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

살펴본다.

조선치대 이상호 학장은 성공적이고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대외명분보다는 해외학술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국내외 인지도 △연구력 및 연구지명도 △산학연 협동기반 △해외 유학출신 교수 확보 여부 및 연수 현황 △정보망 혹은 네트워크 구축 현황 △해외교류의 노하우 △졸업생의 해외진출 현황 △해외교류를 위한 재정확보 상태 △구성원의 해외교류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지역적 및 위치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대학의 해외학술교류를 수행하기 위한 강약점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위의 내용을 분석하여 상대교와 무엇을 벤치마킹할 것인가를 설정한다. 교류체결의 목적 혹은 이유를 설명한다. 한 자매결연대학과 모든 것을 다 교류할 수 없으므로 몇가지 항목을 정해 특정의 외국 대학과 무엇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 할 것을 설정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학생 연수 △교수파견 △국제공동연구 △산학협동 △행정교류 △설비, 기자재 구입 △기술획득 등이다.

세 번째로 실행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때 두가지 면에서 단계적 추진을 하게 되는데 하부단위(교수 또는 교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잘 진행될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교류를 추진한다. 교실단위의 하부교류가 활성화돼 학교단위의 상부

교류로 이행될 경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또 다른 면은 교류의 최종목적을 위해 시행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상호 신뢰감을 형성한 후 확대추진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학점교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 학생견학, 공동세미나 개최, 학점 없는 파견교육, 교과과정 공동개발, 정식학점교류 등 여러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다.

네 번째로 코디네이터 중심의 교류추진을 진행하는 것이다.

보직자 중심의 공식적인 채널에 의한 자매결연 체결 추진은 후에 보직자가 사임할 경우 연속성이 끊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교류가 활발한 교수나 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교수를 교류전담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자매결연 추진 및 향후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권장하도록 한다.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과 계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일정기간에 이루어진 교류의 내용을 냉정히 평가하여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정적 투자에 비해 결과가 없을 경우 자매결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반대로 교류가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과는 단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학생학점 교환, 교수공동연구 수행, 외국자매결연대학과 공동의 사이버대학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한다.

조선치대 이상호 학장은 "외국 자매결연 대학의 교수가 방한하지 않교도 인터넷 지상강좌를 통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각 대학 담당교원(코디네이터)을 선정하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전담하며 학교측이 이를 총괄하는 매트릭스 조직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나 사회단체, 기업장학기금 등의 예산상 지원이나 국제교류센터의 설치 및 위치보장 등이 필요하다.

자매결연시 △단기 또는 장기간의 학생교류 △졸업생 및 교수교류 △공동연구 △정기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은 자매결연 협정시 대부분 포함돼 있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업실행면에서는 각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